

코로나 재확산에 광주 소비 '곤두박질'

7월 광주·전남 산업동향

지난 7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빠르게 퍼진 광주지역이 전국 최대 폭 소비감소를 기록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효과가 막바지에 들면서 4개월 만에 다시 꺾인 지역 소비는 또 다시 내리막길을 걸을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31일 발표한 '2020년 7월 광주·전남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광주는 14.7% 떨어졌고, 전남은 0.9% 증가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소비 동향을 반영하는 지표이다.

광주 소매판매는 지난 4월(3.6%) 이후 회복세를 보이다가 4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광주 감소 폭은 전국 평균(-2.8%)를 훌쩍 넘고,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감소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전년비 14.7% 하락 '전국 최대' 기계장비·자동차 증가 힘입은 광공업 생산은 9.9% 증가

폭을 나타냈다.

광주에 이어서는 대전(-11.1%), 충북(-6.7%), 경북(-6.5%), 울산(-5.8%), 경남(-5.5%), 제주(-4.4%), 충남(-3.8%), 대구·경북·전북(각 -2.7%), 서울(-1.9%), 강원(-0.7%) 등이 뒤를 따랐다. 지난해에 비해 소비가 증가세로 돌아선 지역은 세종(9.2%)과 부산(1%), 전남(0.9%), 인천(0.4%) 등 4곳이었다.

이처럼 광주지역 소비 위축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했던 데는 지난 6월 말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재확산 파장이 컸다.

광주시는 '금양오피스텔' '일곡중앙교회' '광주사당교회'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함에 따라 7월 초 전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방역대응체계인 '사회적 거

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다.

지난 7월 광주지역 백화점 판매는 1년 전보다 17.4% 떨어졌고, 대형마트(-12.1%)도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

판매가 크게 떨어진 상품군은 의복(-35.1%)과 화장품(-28.4%), 오락·취미·경기용품(-24.3%), 음식료품(-7.7%) 등이었고 가전제품 판매는 26.8% 올랐다.

전남지역은 전국적 소비축진 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 (6월26일-7월12일) 기간 동안 대형마트 위주로 가전제품 판매가 61.7% 오르며 소비를 끌어올렸지만, 광주는 같은 기간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면서 '남의 집 잔치' 보듯 했다.

문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끝나는 8월, 코로나19 재유행 영향과 세계적 불확실성

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는 점이다.

호남통계청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된 재난지원금은 두 달 새 대부분 금액이 소진되면서 7월에는 지원금 효과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된다"며 "8월에도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이 발령되면서 소비가 반등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광공업 생산의 경우 광주는 기계장비(24.6%), 자동차(7.9%) 증가에 힘입어 1년 전보다 9.9% 올랐다. 전남은 1차 금속(-13.2%)과 화학제품(-4.2%) 생산 부진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 감소했다.

광주 7월 건설수주액은 공공부문(-84.1%) 발주가 크게 줄며 1년 전보다 3% 감소했고, 전남은 공공(284.2%)·민간(384.8%)부문 모두 큰 폭으로 뛰며 375.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시-광주TP "지역 중기 우수제품 만나세요"

10월까지 롯데아울렛 수완점에 '호남상회' 부스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는 롯데아울렛 수완점 A관 2층에 '호남상회' 판매부스를 열고 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한 우수제품 판매·홍보에 나선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호남상회는 1일부터 오는 10월까지 2개월간 운영되며, 지역 중소기업 생활밀착형 제품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판매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된 '광주공동브랜드' 제품 등을 판매한다.

광주공동브랜드에 선정된 11개사 19개 제품을 비롯해 청년창업시판학교 제품 등 총 16개사 24개 제품이 전시·판매될 예정이다.

참여 기업과 제품은 ▲썬아이디어스 신발살균건조기 ▲썬다윈디앤에스 IoT스마트플러그, 스마트발터팬, 매립형콘센트

▲티아이피인터네셔널㈜ 차량출입방지, 수면유도등 ▲디케이㈜ 공기청정기, 제습기 ▲썬이드엠 바라미5 ▲디알텍 제빙기 ▲엠오그린 LED식물재배기 ▲썬인아 스마트전자레인지, 의류건조기 ▲씨엔티 팻헬스케어러 ▲누리오 Blue BREEZE ▲에이스원 광촉매 공기청정기 등이다.

한편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는 지역 기업들이 대기업의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광주형 공동브랜드 프로젝트'를 추진, 지역 중소기업 생활밀착형 제품에 대한 상품기획 및 마케팅 역량 강화와 공동홍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판로개척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백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광주은행, 생활요금 카드 자동납부엔 최대 3만원 환원

광주은행(은행장 송중숙)은 생활요금을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하는 고객에 최고 3만원 상당을 돌려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KJ카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31일까지 '2020 가을 겨울 생활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이벤트'를 실시한다.

생활요금 종류에 따라 돌려받는 현금(캐시백) 혜택이 다르다.

행사 기간 동안 자동납부를 새로 신청하

면 ▲아파트관리비 자동납부 때 1회·추가 납부 시 각 5000원 최고 1만원 ▲한전 전기료 1회 2000원, 2회 3000원 최고 5000원 ▲도시가스 1회 2000원, 2회 3000원 최고 5000원 ▲학부모 부담금 1회·추가 납부 때 각 5000원 최고 1만원을 돌려준다.

행사 응모는 광주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스마트뱅킹 또는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산 삼성 김치냉장고 할인

삼성전자 모델이 지난 31일 삼성전자 광주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프리미엄 김치냉장고 '비스포크 김치플러스'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신제품 구매 고객에 최대 60만원 상당 혜택을 주고 선착순 1200명에 메탈 김치통을 증정한다. <삼성전자 제공>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26.17 (-27.63) ↑ 금리(국고채 3년) 0.940 (+0.047)
↑ 코스닥 848.24 (+6.94) ↑ 환율(USD) 1187.80 (+3.50)

전남 입직·이직률 4개월 연속 '전국 최고'

7월 4만9000명 입직·5만명 이직

건설업계 노동력 이동이 많은 전남지역 입직률과 이직률이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31일 발표한 '7월 산업체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입직률은 5.7%, 이직률 5.3%로 각각 1년 전보다 0.5%포인트, 0.1%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광주지역 입직률은 전년보다 0.7%포인트 오른 6.5%, 이직률은 1%포인트 증가한 6.6%를 나타냈다.

전남지역 입직률은 1년 전보다 1.3%포인트 떨어진 8.8%, 이직률은 1.4%포인트 내린 8.9%로 두 수치 모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전남 입직률은 지난 3월(9.3%)부터 전국 최고 수준을 이어왔고, 4월에는 이직률(7.8%)도 1위를 차지해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남 입·이직률이 전국 최고 수준을 나타낸 데는 건설업 입·이직자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건설업 노동자 상당수를 이루는 임시·일용 근로자 추이가 입·이직자 통계에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전남지역 건설업 입직자는 2

만4329명, 이직자는 2만4949명으로, 서울·경기에 이어 세 번째 비중을 차지했다.

7월 한 달 간 채용과 전입, 복직을 포함한 입직자 수는 광주 3만명, 전남 4만9000명이었다. 같은 기간 광주 3만1000명, 전남 5만명이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퇴직과 전출 등으로 이직을 했다.

전국 입직자 수는 98만명으로 1년 전보다 7만8000명(8.6%) 증가했고, 이직자 수는 6000명(0.6%) 증가한 90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역 사업체 종사자 수는 광주의 경우 지난해보다 5000명(-1.1%) 감소한 50만3000명, 전남은 9000명(1.6%) 증가한 60만4000명으로 조사됐다.

광주 사업체 종사자 수는 지난 3월(-1996명) 이후 4월(-2125명), 5월(-4126명), 6월(-2641명)에 이어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7월 전국 사업체 종사자 수는 1년 전보다 13만8000명(-0.7%) 줄어든 184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역시 5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구직자 10명 중 7명 "하반기 취업 자신없다"

지원 계획 43.8% "취업만 된다면 어디든 상관 없어"

구직자 10명 중 7명은 하반기 취업에 자신이 없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정보포털 사람인이 최근 신입 구직자 9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71.2%가 "취업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여성은 77.2%가 취업 자신이 없다고 말해, 남성 응답률(61%)보다 16.2%포인트 높았다.

취업할 자신이 없는 이유로는 '코로나19 사태 후 공기가 많이 줄어서'(65.7%·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직무 관련 경험이 별로 없어서(46.6%) ▲경기 악화로 채용이 계속 감소할 것 같아서(43.2%) ▲학벌·학점 등 스펙을 잘 갖추지 못해서(38.1%) ▲주변에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18.9%) 등이 뒤를 이었다.

올 하반기 채용에 지원하려는 지원자는 전체 응답자의 86.6%였으며, 이들 중 절반 가량(43.8%)이 대기업, 중견기업, 중

소기업 등 기업 형태에 관계 없이 '취업만 된다면 어디든 상관 없다'고 답했다.

희망 직무와 업종에 대해서도 '취업만 된다면 무엇이든 상관 없다'는 응답이 각각 20.6%, 23.3%에 달했다.

하반기 취업을 준비하며 겪는 스트레스 수준이 '심하다'는 응답률은 60.9%로 나타났다.

이들 절반 이상(55.3%·복수응답)은 '무기력증'을 겪고 있다고 답했고, '우울증'(49%), '대인 기피증'(26.3%), '두통·어지러움'(26.1%), '소화불량·배탈'(24.5%), '탈모'(11%), '불면증 등 수면장애'(29.8%) 등 답변도 있었다.

취업 준비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취업이 안될 것이라는 불안감'(36.8%)과 '생활비나 취업 준비 비용 부족'(19.5%), '공고가 줄어들면서 느끼는 압박감'(13.4%), '자신감 결여와 자존감 하락'(13%), '스펙의 상향 평준화'(6.4%) 등이 있었다. 백희준 기자 bhj@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